

2010. 6월 모의평가  
**EBS 연계 문제 분석**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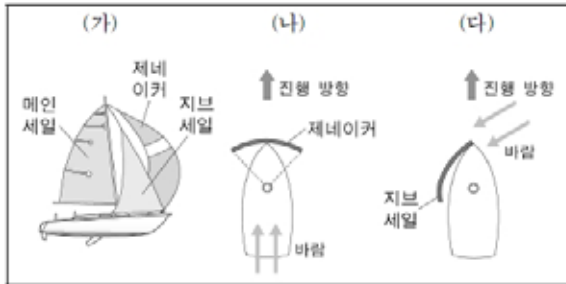
2010 . 06 . 10 . 목  
학교교육기획부 김나미

[ 가 ]

[EBS ]

### 문제 2.

2. (물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항해 중에는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메인세일'을 펼쳐 놓는군.
- ②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를,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이용하는군.
- ③ 부푼 '지브세일'의 앞쪽은 바람이 지나는 속도가 느리고 뒤쪽은 빠르군.
- ④ '지브세일'의 볼록한 앞쪽은 기압이 낮아지고 뒤쪽은 높아지는군.
- ⑤ 역풍에도 전진하는 요트의 비밀은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 같군.

71~72 2

[A]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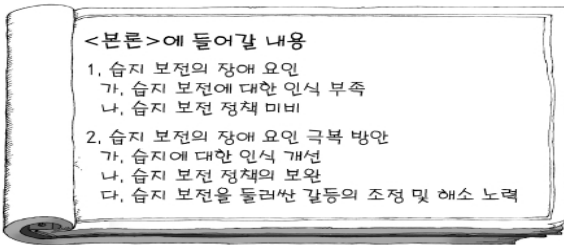
- ① 양은 앞쪽으로 부풀어 오른다.
- ② 양의 뒤쪽은 앞쪽보다 기압이 높아진다.
- ③ 양의 앞쪽은 뒤쪽보다 공기의 양이 많아진다.
- ④ 양의 뒤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양력이 작용한다.
- ⑤ (나)는 바람이 뒷면 앞에서 들어오게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 :  
EBS  
' 가 '

가 ,

#### 문제 7

7. 다음은 '습지 보전'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상세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p><b>자료 A: 습지 보전에 대한 지역 주민 인터뷰</b></p> <p>“해마다 습지를 찾는 철새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요. 습지 때문에 인근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습지 보전에 찬성하겠지만, 저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p>	<p><b>자료 B: 습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b></p> <p>--- ○○○연구원 (2008) ---</p>
<p><b>자료 C: 습지 보전 사례</b></p> <p>○○시에서는 습지 보전에 관한 지역민의 엇갈린 여론을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훼손되고 있던 습지를 생태 보전 지역으로 특화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습지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소득 또한 늘게 되었다.</p>	

- 1'의 하위 항목으로 '습지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추가하고, A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습지 보전에 장애가 됨을 지적한다.
- 1'가'에 A와 B를 활용하여, 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습지 보전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 2'가'를 '교육과 홍보로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논지 전개 방향에 따른 자료 활용 및 보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습지는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 등이 포함된다. 습지는 동시 물의 생존에 불과 영산 요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지
- 미국은 습지 내에서의 주저기 개발을 금지하고, 사냥, 파견지파기, 하이드로 습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만 허가하고 있다. --- ○○지
- 미국은 자연(AMO) 내의 습지 지역은 원시적인 환경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화구만 곳으로, 물질 이루어도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지
- 습지보호 건설, 새안금 간척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 걸쳐 일어나는 소규모 개발,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갯벌은 1987년보다 약 15%가 줄어들었다. --- ○○지
- 습지 보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안으로 개발 계획과 습지 보전의 공존을 통한 지역 사회 과다한 활동이 필요하다. --- ○○지



EBS

C

2'가'에 A와 C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가 ]

[EBS ]

### 지문 13~14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추론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추론 1]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추론 2]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흑시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 추론은 ‘전진하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추론 1’은 전진하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13. 위 글에 따라 추론을 구분하는 과정을 도식화할 때, ㉠~㉣에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문제 13



- ㉠ 타당한 추론
-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전진한 추론
- ㉣ 개연성이 낮은 추론
- ㉤ 타당하지 않은 추론
- ㉥ 전진한 추론

### 174~175

한다.

그렇다면 ‘차량검문’ 혹은 ‘이런 반대의는 왜이리 ‘차량검문’이란 무엇인가? 어떤 추리가 먼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그것의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수 없는 추리 형식을 뜻한다. 또 어떤 추리가 먼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은, 그것의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추리 형식을 뜻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와 ‘거짓’은 명제를 평가하는 말인 데 반해, ‘차량’과 ‘부당’은 추리를 평가하는 말이다. 이처럼 타당하면 추리를 구성하는 명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 명제가 결론 명제를 필연적으로 함축하는 관계를 말하며, 부당하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즉, 타당한 관계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관계이며, ‘타당’의 말에서 보았듯이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추리가 타당한지 알아보자.

[예 1] 그 사건의 입안원은 모순론장이더라(전제 1). 이 결론은 모순론장이더라(전제 2). 그러므로 이 결론은 그 결론장이더라(결론).

‘합의’라는 말에서 전제 사실임을 알아냈는데, 그가 제시한 추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추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할 것이다? 그가 결론적으로 사실과 맞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추리는 타당하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를 보면 타당성이 추리 내용이 아니라 추리 형식에 관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추리에서는 전제가 참이고 그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이 현실에서 후진적으로 참이라고 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 1]의 추리와 타당성을 밝히려면 그걸로 추리 형식인 [예 1]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 2]처럼 전제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부당한 추리 형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2] [전제 1] [전제 2] [이러한 전제 1, 2] [결론] [이러한 결론 2] 그러므로 [전제 1] [이러한 결론].

[예 3] ‘맞아지는’에 관한 문장이더라(전제 1). 그 말은 ‘맞아지는’에 관한 문장이더라(전제 2). 그러므로 그 말은 ‘맞아지는’에 관한 문장이더라(결론).

이처럼 전제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거짓일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면 그 추리 형식은 부당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예들만을 활용하여 추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타당성은 추리 형식과 관련된 것이고 그 형식이 속할 수 있는 예외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를 들었듯이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례 중에 이 전제만을 사례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라고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가능한 모든 사례에 있어서 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달아야 함을 잊어야 한다.

### 2 ( )

### 90~91

한정 명제.

‘내가 일찍이 연금한다던 승진교에서 벗어난 것이다.’ / 나는 일찍이 연금했다. / 따라서 나는 승진교에서 벗어난 것이다.

위와 같은 문장의 논증은 ‘원인-결과’식이라고 부른다. 조건은 ‘원인 A’이다. ‘내가 처음 ‘원인 A’를 ‘후진 B’라고 부른다. 두 번째 문장에서 전진 문장을 함축하는 추리를 함축하는 이유인 것이다. 어떤 명제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기 때문에, 즉 논제 전제가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걸맞은 논증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참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이 모두 참일 때만 전제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논제 문장은 논제가 참이면 참이었던 논제가 사용된 경우 논리적으로도 어떤 논증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결론에서는 단정하고 있었다.

전진 문장을 논증하는 논증의 유형과 같은 명제라고 말할 수 없다.

A이면 B이다. / B이다. / 따라서 A이다.

앞 번째 문장에서 A이면 B라고 한 것은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B는 A가 되기 위해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서 B임을 보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A가 차라니 옳지는 않는다. 어떤 형식의 잘못된 논증은 ‘후진-원인-결과’식이라고 한다.

조건은 형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타당한 명제 논증으로 ‘후진-원인-결과’식이다.

A이면 B이다. / B가 아니다. / A가 아니다.

전진 교제에 따라 ‘내가 내 친구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후진 문장을 사용할 것이다. 이 중 말을 분석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라면 그럴 수 없다. / 나는 그렇게 했다. / 따라서 나는 내 친구가 아니다.

후진 문장은 전진 문장의 오류와 맞닿아 있다. 다음과 같은 논증도 보자.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 복음에 담뭍혀서 있었다. / 따라서 그이는 세습할 수 없다.

위 논증에서 복음에 담뭍혀서 있었던 것은 세습할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일 것이다.

문제14

1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남자: 이 책에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고 쓰여 있어.  
 여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우유를 많이 마셔.  
 남자: 맞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물  
 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거야.  
 여자: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  
 가 큰 사람보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 ① 남자의 추론은 '추론 1'과 달리 전제가 실제로 참이므로  
 건전하다.
- ②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추론 2'와  
 달리 개연성이 낮다.
- ③ 여자는 남자의 추론에서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④ 남자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EBS

2 ( )  
 90~91 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은 100℃가 되면 끓는다. / 물이 끓고 있다. / 따라서 지금 물의 온도는 100℃일 것이다.
- ②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 결핵을 말여 주겠다. / 해는 동쪽에서 떠다. / 따라서 너는 결핵하지 않다.
- ③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간다. / 지금 기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 따라서 나는 지금 높은 산에 있다.
- ④ 달이 치즈로 되어 있다면 지은이가 매우 좋아할 것이다. / 달은 치즈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지은이가 달을  
 매우 좋아한다.
- ⑤ 새가 오래 날기 위해서는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한다. / 저 새는 오래 날지 못했다. / 따라서 저 새는 바람을 잘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 가 ]

[EBS ]

지문 19~22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① 발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뻘한 냄새가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열구리 담배가 다시 도셨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피똥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30~31

[가]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 어디로 갔나  
발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뻘한 냄새가 /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열구리 담배가 다시 도셨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 / 나는 풀이 죽는다  
㉢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피똥는다 /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문제 19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EBS : < > 30 , (가)

## 문제 20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30~31

2

㉠에 대한 (보기)의 해석을 참고할 때, (나)의 ㉡~㉣ 중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은 객관적인 상황을 그린 것이지만, 동시에 아내의 부재로 인해 '몰이 죽은' 화자의 심리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에서는 외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그려 내면서 그 속에 화자의 정서나 심리를 함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문제 21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30~31

3

(가)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접했다고 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초혼 또는 고복 의식은 상례 절차의 하나로, 사람의 죽음이 곧 혼의 미망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 미망인 혼을 불러들이 죽은 이를 다시 살려 내라는 간절한 소망이 희재된 것이다. 그 절차는 명종 식 후 죽음을 향해 죽은 이가 평소 입던 옷을 혼들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 행위 이후 남은 사람들은 미망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게 된다.

- ① '메아리'는 아내의 혼이 떠나는 상황을 청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② '어디로 갔나'의 앞에 서술된 일상의 삶의 내용은 아내의 생전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겠다.
- ③ '어디로 갔나'를 세 번 반복하는 행위는 죽은 이를 부르는 초혼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다.
- ④ '애타게 찾으며 아내를 불렀으나 찾을 수 없기에 화자는 아내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다.
- ⑤ '어둠'과 '기'를 통해 아내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화자의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겠다.

→ :

31

4

### 지문 23~27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버님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알고도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날거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체에 더 다가감으로써 **② 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제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232~233

①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해, 뇌가 어떻게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인 시간에 걸친 시각적인 정보를 생리적으로 축적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다가 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혁명적인 그림은 과거와 어떤 그림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두 화가는 모두 큰 세간의 직접 방에서 영향을 받았다. 과거의 화가들은 일관된 원근법 체계에 이용해 그림에 안정성과 깊이감을 부여하고자 했으나, 세잔은 의도적으로 회화의 공간을 왜곡하고 불안정한 각도로 명을 기울여 안정적인 정물화여 벽두감과 긴장감을 부여했다. 이러한 불균형한 화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물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화면을 구성했다. **②**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해, 세잔은 세심하게 배열한 정물에 더욱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세잔이 죽은 뒤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은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피카소와 브라크는 죽자 세잔의 영향을 도입해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초기 정물화에서 동시적인 시점의 결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형태를 왜곡·변형·대까지 왜곡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물의 주위를 걸어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림은 **③**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 냈다.

입체주의가 발전하면서, 피카소와 브라크는 새로운 방식으로 회화 표현의 표현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때때로 그들은 그림 위에 글자나 단어를 그리거나, 물감에 풀과 모래를 혼합해 재질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1911년경 그들은 벽이나 천장과 같은 실제 세계의 재료를 직접 정물화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급 예술의 문맥에 일상적인 물건이 도입되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과거의 정물화가들은 가능한 한 완벽한 기법으로 대상을 표현하려 했으나, 피카소와 브라크는 단순히 심문 조각과 대상의 형태적인 외곽 그림의 표현 위에 몰입했다. 한순간 실제 생활의 재료와 허구적인 대상의 배열에서 관찰되는 눈은 평면적인 회화 표면에서 환영적인 대상들의 의미의 사이를 앞뒤로 오가게 되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입체주의의 발전을 주도한 인물이었으며, 많은 동시대 화가들이 이들의 방식을 따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그리는 모두 입체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을 수용했으며, 그 위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구축했다.

### 2 ( )

### 36

다음 것이 회화적 표현을 다루는 공인적의 기본 일항이다.

작가에게 고프리드보다 다소 앞선 제자인 피카소 보기는, 예술 작품이란 어디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이므로 현실 세계의 미각·미감을 결코 작품의 초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예술 작품에서 작가가 이는, 실도 예술 작품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려도 궁극적으로 예술 작품의 법칙과 작법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술 작품 자체의 표현성을 강조한 그는, 예술 작품에서 표현을 예술가의 내적 의지를 통해 표현하는 유기성과 진정성을 가진 형식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보기는 고프리드와는 달리 예술 작품은 맹목적인 유기적 형태 미를 가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삼중 어둠’을 통해 할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가는 관찰자가 유기적 형식을 알기 위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유기성과 진정성이 있는 예술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예술 표현적적인 기법에도 현실과 그 현실의 이어져서 살아가고, 그 이어져서 표현에 대해 현실을 의지하는 것으로 혹은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프리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술가는 사물을 진지하게 보아 가는 데 관찰을 유기보다는, 사물을 알아 있는 것이 보이기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보았다.

어른처럼은 표현성을 강조하는 일항에서 이 나아가 표현은 표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정한 보편적의 법칙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 그림 속의 수평·수직이 슬며시 보인다 할 때, 보편적의 일항에서 보면 감성적의 슬며시 마음이 이입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항은 수평·수직의 형태 자체가 그리 한 슬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슬며 보인다고 한다. 우리는 할없이 늘어선 수평·수직의 모습 자체를 지각하여 슬픔을 느끼는 것이고, 각자 연상을 통한 감성 이입에 의한 것은 순서상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이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지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품도 있고, 감정을 이입해야만 표현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지식을 통한 표현은 감정을 이입하는 그림에 하도류 되는 표현성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표현을 통해 의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거나 감성적의 지식이 표현을 더욱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것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답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답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폼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답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뒀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3.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문제 23

- ① 스타인의 초상화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

→ : EBS

26.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문제 26

- ①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 사람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된 사람의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 : EBS

문제 27

27.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擧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문제 24

2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가)	(나)	(다)
		
모네(1891) <늪가 닭의 난가리>	세잔(1899) <사과와 오렌지>	피카소(1907) <아비뇰의 여자들>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232~233

11~1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나)
	
볼테르 (성인 형제들의 거처가 있는 집안)	다빈치 마리아,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 ① (가)에서 화가는 색조적으로 회화의 공간을 왜곡하여 대상의 엄격한 에지들을 제거하고 있다.
- ② (가)에서 기울어진 과일 접시의 떨어질 듯 모이는 과일들은 작품에 역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동사의 몸 할아리의 모습을 그린 것은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한 것이므로, (나)는 대의를 위해 높은 병과 유리잔을 일상생활의 평범한 세로를 통해 병행 위에서 구현하고 있다.
- ④ (나)에서 피카소는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제로점 거리의 삼각형적인 원형들을 인물이 넘으로써 대상의 왜곡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③~⑤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의 높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② (가)와 달리 (나)와 같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
- ③ (가)와 달리 (나)의 높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므로 옳다.
- ④ (가), (나)의 높은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림묘한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⑤ (가), (나)의 높은 모두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

가

문제 25

25. **폼브리치와 굿텐**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2 ( )  
36 3

굽브리치의 관점에 따라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예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p style="text-align: center;">미켈란젤로 '황소'</p>	<p>가. 굽은 언덕과 울퉁한 대담으로 그려진 노움과 황소에 담긴 화가의 내면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p> <p>나. 1550년대의 명목적 유행의 시기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벗어난 노움의 표현으로 이 황소는 인위적 유행을 보여 주는 존재라 할 수 없다.</p> <p>다. 굽은 황소의 노움을 함께 체험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황소의 매우 길게 보이도록 그려진 입과 새겨진 눈은 슬픔의 형상 그 자체라 할 수 없다.</p> <p>라. 굽은 노움을 배경으로 서 있는 황소는 당시 가축과 해마에 홀로 자란 화가의 형상으로, 그의 고독과 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p> <p>마. 모두 옳으므로 무엇이든 적어볼 수 있는 황소의 커다란 눈이 사슴과 보이는 것은 지난 시절 홀로 떠돌던 나의 최후의 처지가 떠올라서일 것이다.</p>
--	--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나, 마

→ :

3

[ 가 ]

[EBS ]

지문 28~31

1 ( )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1~83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매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뉘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는 지 십삼 년이 넘는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따마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밤바다에 부르드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다가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라면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견뎌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햇볕 속으로 나온 음식 식물처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늘 늘한 꼴몰을 후후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얻어 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을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그 야윈 손길마저도 아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답부분 출제지] 다시 인간의 서울 바깥은 꼬두매에서 태어나지만 그친위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날 낯 낯한 어머니는 바루에서 보기를 받는 행위를 하는 등 심상 초세를 보인다.

유년기도 종일의 주르른 밭업을 못 잊어 어린 어머니였다. 눈을 들면 사람 아다라고 혼들 뭇뚱으로 뒤달린 걸림이네. **붉은 황토** 한 움큼을 밟아 밟아 밟아, 그리고 황갈 무명재 깎아 짠 있는 노지리 착한 마늘을 바라보며 어떤 심 일이 천도록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서울의 작막한 **콘크리트 황재** 종이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서 구해 있는지 **채송화화** **멘트라비** 씨나 향리를 가져와 고향 그곳에 심고 무논 보물단지나 되듯 손중하게 키우기도 했고, 언젠가 **불행동 심백달** **이슬잠재** 새들이 갈 때는 한 사과 껍질에 당주리를 뿌려 정실으로 거꾸다라 정국은 그만은 적이 있었다. 커다라 자갈섬으로 아이들의 오름을 받아 뿌리는 불어 딱딱 해본에 건넌 수가 없다가 주원일 여자가 출아올라라 한어날 언덕을 밟았기 때문이었다.

자란, 자란, 자란——  
어머니의 밭소리는 무관의 변복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향수로 후련처럼 맑은 아버지를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보니 그는 그때까지 아버지를 거말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세 살 나던 해에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꼬두매 배를 달린 송팔 기술의 공방모자에 지금도 묻혀 있을 것이었다. 흰수어이, 꼬두매로 잘 키웠다. 아버지가 없애나 커다라키리나아…… 어머니의 남부리가 그의 곁엔을 행했고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일해 일어났다. 서울로 떠나온 후 십삼 년이 넘도록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덤이 떨어진 어머니어머니 무덤과 부름이 올라 그의 가슴을 부릴때 무덤이 대기 시작했다.

그렇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결코 잊고 있었을 리가 없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땅을 꺼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결같이 차후차후를 고마조이던 마음으로 어머니가 물러가다나사리 하는 모든 자식의 피곤하고 가난에 커는 생활이 당신의 그 간절한 손길을 예뻐 불러내어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는 땅문을 파며 비워버리고 밖으로 밀려나갔다. 그리고 보화를 잃고 있는 아버지의 여생을 재재해 잡아 흔들었다.

좋아요, 어머니, 가십시오. 어떤이라도 없게 내리개십시오. 오늘 달빛 꼬두매로 커서자구요!  
한동안 어머니의 양면한 눈빛들이 그의 앞에서 고장난 자동차처럼 뒤뚱뒤뚱 움직여 버려져 있었다. 커서자구요, 잘하오셨어요, 어머니? 꼬두매로 가요, 아버지를 따라 가자는 겁나나(송팔)  
어머니한테서 그의 손전기와 청년기의 알부부거름을 고스란히 보면 그 꼬두매 시절을 생각해 재다! 그는 언뜻 언뜻어는 스디은 불후대를 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 이십이 년의 세월을 돌리자 보면 그에게는 다만 스디은 송팔과 커다란 기억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커다란 할마아에서 흙을 갈아먹던 어린아이 때부터 두 아이의 키가 커 된 이 순간까지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자꾸자 되어 정실로 간질고도 안고라재 그의 눈에 변함없이 달려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 시절의 그는 늘 제기가 재 있었다. 반 뉘십이씩 아랑이를 피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허리를 펴어 안고 주저앉아 허릿살이 손뭉탄 물어물어 재었다. **시원——** 들릴 나간 어머니가 흔득 들어오지 않을 때면 그는 뿔과 함께 손을 얹고 뒤만 새들을 돌리자 산기슭에 있는 목장밭을 찾아 나서는 겠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길다란 발고랑 한 공방에서 한 마리 채추를내버리질 없던 채 자그맣게 움직여 주고 있었다. 가끔 어머니가 과수원이나 동네 야마로마르노 살들을 나가 있을 때면 바림부리 그들의 작은 가슴은 기대에 부응어 오르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과수원이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의 아버지 산소 앞 울밭에 앉아 몇 시간이고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다. (중략)

[중략 부분 출제지] 다시 태어났지만 그와 어머니는 꼬두매 마을을 찾지만 마을은 이미 이따리 단지로 변해 있고, 아버지의 산소는 사라지고 없다. 잠시 한눈을 판 아이 어머니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 사라져 버렸다.

늘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언뜻엔 희화올아재된 희고 달소리는 눈송이가 이따 허슬을 가져 채우며 뿔뿔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산기슭에 이르러 한물만 짐승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아 행성했다. 커서자구터 깊은 구룡굴을보고 커다란 절조대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재편으로 고백감을 모르는 사정들레 모습에 **회합대할** 눈매 재기는 했지만, 그 카운테에 어머니가 커어 있는지는 확실치개 없었다.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아다로 가신 것일까. 흰수어이, 꼬두매로 잘 키웠다. 몸집만 무뎠던 길던 어머니의 종살이 곳엔에서 뿔을 들었다. **할, 어머니는 가버려 [시원]을** 찾아가시겠다고 말해달로말게하시니 흥로 겁을 내신 것일까. 공방에 희망레 눈을 맞았어 어디론가 회합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비추었다. 꼬두매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어찌 잠이 들어 있을는지 모지는 새겨를 찾아 갔을 나쁜 것일까. 그렇다면 그 새겨는 오직 어머니 혼자만 사는, 달실만하의 소중한 세계일 허었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식도 잊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한 이름들이 새겨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의 작한 혈, 그리고 아버지 버린 시절의 그의 햇빛 없었고 그 커다란 지구를 곁에서 함께 온지 갈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허니네. 그러나 그는 새겨를 고개재 줄줄이 버렸다. 꼬두매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땅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는 새살 새사람이 모 두가 알고 있는 그 생생한 시절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재, 어머니를 찾아내어야 재.  
그는 버림레 흐르르르재 쫓아져 내리는 한학을 눈을 말으며, 비참 커리는 걸음으로 앞고개를 커키오르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가 날아져 기고 있었다. 온몸, 체질은 온통 온달이었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 우아이. [꼬두메]로 핑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컷전에서 땀을 뚫었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얼토당토않게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곱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어 버렸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를 거리는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29.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문제 29

— <보 기> —

문제의 소절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중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무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31

- ㉠ : ... 기간
- ㉡ : ...의 따뜻한 인정
- ㉢ :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
- ㉣ : 삶을 지탱해 주거나 도와줌
- ㉤ :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

→ :  
EBS ' ' 1/3  
2 (28, 30 )

→ :

→ :

## 문제 28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

100%

## 문제 30

30. [꼬두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여 있다.
-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

:

100%

8 , 6 , 2 ,

1 ( )  
81~83 5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묶은 것은?

• 보기 •

- ㉠. 현재 시간 속에 과거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 ㉡. 인물의 내적 독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 ㉣.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물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1 ( )  
81~83 8

[A]를 참고할 때 '꼬두메'에 대한 '그(천우)'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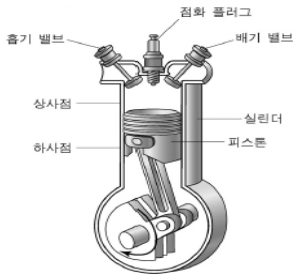
- 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 ② 다시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곳이다.
- ③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 주는 곳이다.
- ④ 현실 속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 ⑤ 현실의 부정성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다.

### 지문 36~38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 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흡기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유입되는데, 흡입되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공기와 함께 연료를 섞어 넣는다. 압축 행정에서는 ㉠ 실린더를 밀폐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폭발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일으



켜 압축된 혼합 기체를 연소시킨다. 압축된 혼합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발생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남아 있는 압력에 의해 연소 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빠져나간다.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흡기 때와는 반대로 부피가 줄면서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높아지므로 잔류 가스가 모두 배출된다.

이러한 엔진의 동력 발생 주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연료의 혼합비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 일정 질량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한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이동으로 흡입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므로,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주기 동안 완전 연소가 가능한 연료량의 최대치는 일정하다. 즉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와 연료의 적정한 혼합비는 이론적으로는 일정하다. 혼합비가 적절하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면서 유해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정 혼합비보다 혼합 기체에 포함된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공기 과잉으로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잔류한다.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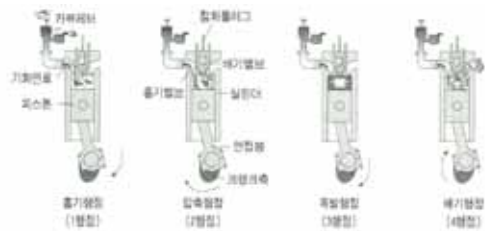
### 96~98

최초의 차는 프랑스의 엔지니어 퀴노에 의해 1769년에 발명되었다. 그것은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상륜으로 된 대로의 전인차였는데 비록 실용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증기의 힘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이후 퀴노의 상륜차와 같이 덩치가 큰 증기기관으로 추진되는 달것들이 나타나서 나뭇대로 상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증기의 힘은 빠른 교통 수단을 추구하던 발명가들에게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증기기관은 석탄이나 목재, 기름과 같은 연료를 기관의 외부에서 연소시켜 움직이는데, 17세기 호이엔스는 화학 실험을 하던 중 다른 종류의 기관, 즉 내부 연소로 움직이는 기관을 착상했다.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이는 실린더의 내부에 연료를 주입한 후, 이 연료를 연소시키면 그 폭발로 인해 발생한 가스가 피스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호이엔스는 이 추진력을 자동차의 바퀴에 전달하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연료를 기관의 내부에서 연소시키려는 노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마침내 내부 연소 기관은 실용적인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발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1860년에 프랑스의 발명가 르노아르가 제작한 작은 단기통의 내연기관이었다. 그 장치는 수평으로 놓인 실린더의 양쪽 끝에 교대로 연료를 주입한 후 연소시키면, 밀폐된 실린더의 좁은 공간 속에서 교대로 일어나는 연속적인 폭발의 힘에 의해 실린더 속에 있는 피스톤이 빠른 속도로 왕복하게 된다. 르노아르가 단기통의 내연기관을 개발한 2년 후, 역시 프랑스의 과학자 모사는 이 새로운 기관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모사는 그 과정에서 4행정 내연기관의 원리를 창안하였다.

이렇게 창안된 4행정 내연기관은 현재까지 거의 모든 내연기관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4행정 내연기관에서는 분무기의 역할을 하는 카뷰레터(기화기) 속에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되어 폭발하기 쉬운 기체 상태로 실린더에 보내진다. 실린더에는 피스톤이 끼워져 있고, 이 피스톤은 연결봉(커넥팅 로드)으로 크랭크축과 연결되어 있다. 카뷰레터로부터 실린더 안으로 주입된 기화 연료가 연소하면 그 폭발력이 피스톤을 실린더의 아래로 밀어 내고 피스톤과 연결봉으로 연결된 크랭크축이 돌아간다. 이렇게 회전한 크랭크축은 다시 연결봉을 통해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고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반복된다.



4행정의 내연기관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속되는 네 가지 행정을 거치면서 동력을 발생시킨다. 제1행정(흡기행정)에서는 피스톤이 내려가며 열려진 흡기 밸브를 통해 카뷰레터로부터 기화 연료를 실린더 안으로 빨아들인다. 제2행정(압축행정)에서는 흡기 밸브가 닫히며 피스톤이 올라가서 기화 연료를 1/4분의 1로 압축한다. 제3행정(폭발행정)에서는 압축된 기화 연료가 점화플러그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이 폭발력이 피스톤을 하강시킨다. 제4행정(배기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며 피스톤은 다시 올라가 연소된 기체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한다. 이렇게 4행정은 피스톤이 실린더 속에서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운동하는 과정으로 완결되며, 각 행정이 완료될 때마다 힘이 연결봉을 통해 크랭크축으로 전달된다.

→

:

EBS

가

## 문제 36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4 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된다.
- ②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 ③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④ 혼합 기체의 흡입과 연소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혼합 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96~98

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내연기관은 연료를 기관의 내부에서 연소시킨다.
- ② 18세기에 증기기관을 이용해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
- ③ 로사가 창안한 4행정 내연기관의 원리는 현재까지도 내연기관의 기본 원리가 되고 있다.
- ④ 4행정의 내연기관이 4개의 행정을 모두 거치면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서 4회 왕복하게 된다.
- ⑤ 내연기관에 대한 착상이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차의 발명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이루어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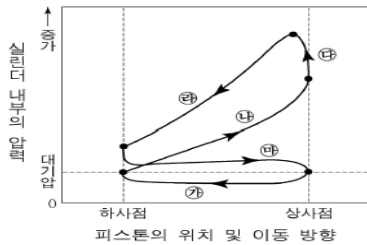
EBS

8

4

## 문제 37

37. 다음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에 해당하는 구간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6~98

10

4행정 내연기관에서 다음의 ㉠와 ㉡에 해당하는 행정은?

- ㉠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다.
- ㉡ 피스톤이 실린더의 아래 부분으로 내려간다.

- ① ㉠ - 흡기행정, 압축행정
- ② ㉠ - 흡기행정, 배기행정
- ③ ㉠ - 흡기행정, 폭발행정
- ④ ㉠ - 압축행정, 폭발행정
- ⑤ ㉠ - 압축행정, 배기행정

- ① ㉡ - 흡기행정, 폭발행정
- ② ㉡ - 흡기행정, 배기행정
- ③ ㉡ - 압축행정, 폭발행정
- ④ ㉡ - 압축행정, 배기행정
- ⑤ ㉡ - 흡기행정, 배기행정

→

## 문제 38

3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해발 고도가 5,000 m 정도인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한 주기 동안 분사되는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①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 ②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③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된다.
- ⑤ 동일 양의 연료에서 얻는 출력이 커진다.

→

[ 가 ]

[EBS ]

지문 39~43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鵑)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급죽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기고  
 모쳐라 날넌 널석만징 애크\*질 번 하계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애크: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났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밤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꽃이나  
 마음을 다루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흥길할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썼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심은 누가 염오라  
 너희 재주 해이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건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오마 ㉠ 울은 네 물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식에 버를 년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빛을 언제 보라  
 방아를 못 찼거든 거치나 거친 울버  
 옥 같은 ㉡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 살림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져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루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언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과 하면서 ㉤ 새끼 한 사리 다 모겠도다.

작자 미상, 『고구려서』

50~53

[나] 한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 서리 맞은 켈파리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안자.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鵑)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급죽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그 아래로 자  
 빠졌구나.  
 모쳐라 날넌 널석만징 애크\*어혈은 어혈(魚血)질 변하계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가] 짐이 오히려 짐을 제쳐 놓고 이 짐 저 짐 빌어먹는 저 미승아 / 우리 짐 내력을 어느나 모르느냐? /  
 이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러라. / (㉠) 조부(祖父) 살림살이 하면 할 때 / 어린 마음을  
 달아 쓰니 사팔들이 저절로 모역 / 풀을 베고 타를 달아 곤 실을 짚어 내르 / 씨래, 모승, 쟁기, 소모  
 논밭을 갈아 일러내니, / 올 벼는 짓밭이 어드레 동안 갈아드라. / 자손에게 계승하여 대대로 내려오  
 나 / 논밭도 좋거나와 미승들도 부지런하고 근심되라.

지하에다 농사 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 ㉡ 요사이 마음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 밤사발 크나 작  
 난, 동웃이 좋고 꽃나, / 마음을 다루는 듯 두두머리를 시샘하는 듯 / 무슨 일에 감겨들어 발꿈발을  
 일삼느냐? / 너희를 일 아니 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 가뜩이나 내 살림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 엇그  
 제 도져들에게 약탈되어 가산이 탕진되니 / 짐은 오히려 풀아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네. / ㉢ 크나큰  
 세간을 여백하여 일으키려느냐? / 짐가 이가 배슬을아, 새 마음을 찍으려무나.

너희를 꿀었다 하여 생각하려고 아니 하느냐? / 한 손에 밥 먹으며 항상 아꼴다올하랴? /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지구나. / 한 짐이 부자가 되면 옷과 밥을 인척하게 하라. / ㉣ 어떤 이는 쟁기 갈  
 고 어떤 이는 소를 모니, / 밭 갈고 논 갈아 벼 심어 텃쳐두고, / 날이 솟은 호미로 김을 내자구나. /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무성했고 무논도 짐이 무성하여 건대. (중략)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잡고자 하니, / 엇그제 왔던 도져 멀리 아니 갔다 하되 / 너희를 귀하 눈이  
 없어 저런 줄을 모르거에, / 화살을 제쳐 제쳐 놓고 옷과 밥만 다루느냐? / 너희를 데리고 쟁기 추운  
 가 굶는가 물어하며,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  
 일만 하려 하니, / ㉤ 생각 있는 새 마음을 어느 때 언어서 / 집안일을 맡기고 근심을 잊으려느냐? / 너  
 희 일 애달과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모겠도다.

- 허연, 『고구려서』

→

:

‘ 가 ’ EBS  
 ,  
 ‘ 가 ’



## 문제 39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특정 장면이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51 1

(가)와 (나)의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취하고 있는 공통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대상의 행위를 과장하여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의 속성을 언어유희를 활용에 희화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현실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을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53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현실의 문제점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
- ④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

→

:

가

EBS

53 1

3-5

4

52 1

1-3

5

## 문제 40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문제 41

41.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달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핑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걸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나  
 아마도 걸 회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벌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기른 풀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주대집하거든 일에서나 자고 가자.
-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분황 올까 하였더니  
분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온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분황 오게 하리라.
- ⑤ 장공에 맺는 술개 눈 살림은 무슨 일인가  
찍은 권을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분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

EBS  
51 2

51 2

(보기)의 ㉔와 ㉕는 (나)에 드러나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가)와 연결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백송골'과 '두꺼비'가 공생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가)의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㉔는 '백송골'이 '두꺼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의 '노인네'와 '쥐'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㉔는 '백송골'이 '두꺼비'에게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가)의 '노인네'와 '고양이'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㉕는 '두꺼비'가 '진파리'를 수탈한다는 점에서 (가)의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㉕는 '두꺼비'가 '진파리'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의 '고양이'와 '백성'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문제 42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웃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던군.

→

53 2

100%

53 2

(보기)를 참조하여 (가)의 ㉑~㉕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임진왜란 직후에 희진이 지은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의 관료 사회의 단면과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관료 사회의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

- ① ㉑: 임진왜란 직후의 국가 현실과 대조되는 개국 초기의 국가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
- ② ㉒: 정사는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군.
- ③ ㉓: 이상적인 관료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특정한 신화가 방해가 됨을 꼬집고 있군.
- ④ 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료들이 지녀야 할 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군.
- ⑤ ㉕: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실망하면서 한편으로 바람직한 관료의 등장을 소망하고 있군.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  
 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으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  
 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슬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  
 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금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  
 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줄  
 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 문제 47

47.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EBS

### 문제 48

30.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르면 옳은 것은?

<보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168 ~ 170 2

EBS

### 문제 49

3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 :

### 문제 50

3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개포전(開圃田) 이야.

→ :

168 ~ 170 2

EBS

2

168~170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비슷한 시기의 소설 『소대성전』과 인물을 구성이나 줄거리 등이 유사하다. 주인공이 어려서 고아가 되어 걸식하다가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나 보물의 영웅처럼 어려서부터 비범성이 드러나기보다는 법안 먹고 잘만 사는 위인으로 나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소대성전』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권 전쟁에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소대성전』은 주인공의 초월적인 도술과 무술을 중심으로 시선이 전개된다. 반면 이 작품은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직강하는 구조가 아니며, 천상계의 개입도 극히 부분적이었던 나타나면서 넓은 도량과 깊은 인격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그리고 있다.

- ① 『소대성전』과 달리 위 글은 주인공의 인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 ② 죽은 인물과 주인공과의 만남은 천상계가 현실 세계의 일에 개입한 것이므로.
- ③ 승리를 위해 주인공이 겪어야 할 시련의 과정은 천상에서의 괴로 인한 것이므로.
- ④ 불결하고 얼룩덜룩한 천막에서 많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넓은 도량을 보여 주고 있음.
- ⑤ 벼는 많이 낫지만 벼보 주인공의 모습은 보물의 영웅 주인공과는 달리 당대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었으므로.

2

168~170

3

[A]의 말허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행동을 재촉하고 있다.                      ②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                      ④ 상대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말을 바를 경우의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2

168~170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비슷한 시기의 소설 『소대성전』과 인물을 구성이나 줄거리 등이 유사하다. 주인공이 어려서 고아가 되어 걸식하다가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나 보물의 영웅처럼 어려서부터 비범성이 드러나기보다는 법안 먹고 잘만 사는 위인으로 나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소대성전』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권 전쟁에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소대성전』은 주인공의 초월적인 도술과 무술을 중심으로 시선이 전개된다. 반면 이 작품은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직강하는 구조가 아니며, 천상계의 개입도 극히 부분적이었던 나타나면서 넓은 도량과 깊은 인격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그리고 있다.

- ① 『소대성전』과 달리 위 글은 주인공의 인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 ② 죽은 인물과 주인공과의 만남은 천상계가 현실 세계의 일에 개입한 것이므로.
- ③ 승리를 위해 주인공이 겪어야 할 시련의 과정은 천상에서의 괴로 인한 것이므로.
- ④ 불결하고 얼룩덜룩한 천막에서 많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넓은 도량을 보여 주고 있음.
- ⑤ 벼는 많이 낫지만 벼보 주인공의 모습은 보물의 영웅 주인공과는 달리 당대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었으므로.